

서구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
인천시 - 서구 간 업무협약식
'21. 2. 3. [수] 15:30 공감회의실

기안 : 국하나(자원순환과/3585)
검토 : 이어진(평가담당관/3314)

〈행사 개요〉

1. 참석자 : 11명

- 박남춘 시장, 이재현 서구청장
 - 배석 : 교통환경조정관, 환경국장, 서구 환경안전국장 (사회 : 대변인)
- 김교홍·신동근 국회의원, 임동주·김종인·김진규·전재운 시의원

2. 행사내용

- 시장말씀 및 참석자 간담
- 협약기관 대표자 업무협약서 서명

3. 주요내용

- **협약내용** : 협약당사자는 서구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설치·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
 - (인천시) 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·기술·재정적 지원
 - (서구청) 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 추진의 주체로써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에 따른 절차를 수행
- **상호협력** : 협약당사자는 사업수행을 위해 상호 지원 및 협력 도모
- **협약방법** : 협약서 2부에 기관대표자 서명 날인

□ **환경특별시 인천, 친환경 시대로의 전환을 시작**

- 오늘 이 자리가 가능하도록 애써주신 분들께서 바쁜 가운데 함께 해주셨음.
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고자 함
이재현 청장님, 김교홍 의원님, 신동근 의원님,
임동주, 김종인, 김진규, 전재운 시의원님.
진심을 담아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림
- 오늘 협약은 우리시가 일관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‘발생지 처리원칙’에
입각한 환경정의를 기초지방정부와 함께 정책으로 실현하는 첫 걸음

-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위해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확충은 필수불가결하다는 데 공감대를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

□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서구가 가장 먼저 함께하게 되어 더욱 뜻깊음

- 인천은 지난 30여 년간 수도권 2천 5백만의 쓰레기를 떠안으며 피해를 감내
-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과 미래세대를 위해 인천에서 부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수도권매립지 닫고, 인천의 쓰레기는 인천에서 친환경적으로 자체 처리하겠다고 선언한 것
-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온 서구가 가장 먼저 인천과 뜻을 함께 하고, 협약체결이라는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진 것은 큰 의미
 -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
- 우리의 피해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넘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발생지 처리 원칙에 의거한 책임을 그 누구보다 먼저 지고 비정상의 정상화에 기여하고 계신 서구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
 - 서구는 ‘클린서구’를 목표로 감량과 재활용에 기반을 둔 폐기물 선진화 정책 선도
 - '21. 11월 환경부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사업 선정(자원순환 선도형 스마트 순환경제 커뮤니티 구축사업)
- 앞으로 인천시와 서구가 협력해 ‘환경특별시 인천’, ‘클린서구’ 위상을 공고히 하고 친환경 시대로 나아가겠음

□ 아무리 좋은 정책도 주민 수용성 없이는 나아갈 수 없음

-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
- 인천시는 자원순환시설이 더 이상 기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 함께 공존해야하는 친환경·친시민시설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예정임.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길
- 이번 서구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다른 군·구와도 지혜를 모아 친환경 쓰레기 처리 시설이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음